

< B I B L E >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성경의 3대 주제>

Adam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새 하나님 나라와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중단된 이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다시 완성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문제 없는 세계’의 기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성경의 언약, 율법, 제사, 선지자, 메시아 예언, 십자가, 부활, 성령강림, 교회, 종말의 소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죄가 유익했다”는 뜻이 아니다. 죄는 파괴이며 관계 단절이다. 다만 죄로 인해 구속사가 시작되었고, 성경은 그 구속사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완성의 약속을 기록한다는 뜻이다.

1. 창조의 목적.

-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
-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

1) “창조”는 그냥 시작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시작이다.

창조는 “세상이 생겼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를 시작하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창조는 성경 전체 목적을 암시하는 “서론”이기 때문이다.

2)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신앙의 나침반이다.

성경은 인간을 “우연한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수행할 존재”로 소개한다.

따라서 신앙은 “원래 목적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3)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한 칭찬이나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상태, 곧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이 그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따라서 영광은 감정적인 찬양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인정되고 실현되는 통치의 현실을 가리킨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분의 통치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삶의 실체가 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가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복지나 행복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2. 하나님의 Incarnation, (성육신)

- 목적: <요6:38-39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 구약은 Incarnation을 위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 신약은 Incarnation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시방서(Specification)이다.

※ 시방서(Specification)는 특정한 목표(Project)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직접’ 담당하신 사건이다.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능력을 잃었다.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그 끊어진 관계는 단순한 교육이나 훈련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요 6:38-39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개인적 목표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뜻’은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택한 자를 잃지 않고 살리는 것)를 가진 계획이다.

2) 성육신은 창조 목적을 다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 문장은 성육신을 “신비한 사건”으로만 두지 않고, 창조 목적과 연결한다.

성육신은 “새로운 종교의 시작”이 아니라,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이다.

3) 구약은 “무대 준비”이며 신약은 “실행 문서”이다

“구약은 Incarnation을 위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구약은 단순한 고대사의 기록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언약의 계보와 나라의 틀을 세우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 언약: 백성의 부르심 / 출애굽과 율법: 백성의 정체성 / 가나안 정착과 왕정: 나라의 형태
신약은 단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부활이 무엇을 확정하는지, 성령이 왜 임하시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실행 가능한 형태”를 제시한다.

<성경은 “기획(창조)→ 위기(타락)→ 실행(성육신)→ 완성(새 나라)” 구조를 가진다.>

3.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요3:16-17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1) 구원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다

요 3:16-17은 사랑과 구원을 연결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구원 행동으로 나타난 희생이다.

구원은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다. 죄는 관계 단절이고, 구원은 관계 회복인 것이다.

2)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따름”으로 완성된다.

“구원은 Incarnation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여기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포함한다.

‘보고 믿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눈으로 봄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삶을 맡기는 믿음을 뜻한다.

3)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약속은 구원의 완결을 가리킨다.

구원은 시작(칭의)만이 아니라 완성(영화)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구원을 “현재의 위로”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부활로 완성하신다.

따라서 구원은 개인 심리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는 실재적 사건이다.

< B I B L E >

1.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첫 백성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는 폐쇄되었고, 첫 사람인 아담마저 추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뜻을 사람에게 알리고자 선지자 또는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셨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들이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 뜻을 선포한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다고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아니다.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 주고, 공급하며, 인도하기 위해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록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담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성경, 하나님의 성육신, 성령의 임재, 새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도 없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완성’과 ‘백성의 구원’에 있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한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아니다)

- 창조의 목적은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어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다.

<사 43:7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노라>

- 첫 번째 창조한 사람인 아담을 택하여 에덴동산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였으나, 그의 불순종으로 건설은 중단되었다.

-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기 위해 선포한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1) 성경은 “창조 목적”을 밝히는 책이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방법론이다.

창조 목적을 알면, 창세기의 시작이 왜 중요한지, 출애굽과 율법이 왜 필요한지, 선지자들의 외침이 왜 반복되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필수인지, 교회의 사명이 왜 구원과 연결되는지가 하나의 줄기로 정리된다.

2) “나라의 폐쇄”와 “추방”은 관계 단절의 상징이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에덴은 닫혔고 아담은 추방되었다. 이것은 단지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상징한다. “추방”은 곧 나라의 백성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

3) 성경의 본질: 하나님 나라 완성과 백성 회복이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며, 한 표현으로 말하면 “백성 회복”이다.

백성 회복은 단지 종교 가입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이다.

2.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Bible 기록목적)

-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인간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시방서.

(시방서-specifications : 계획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놓은 문서. 그 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재료에 대한 성질, 특성등 사용에 대한 설명서. 청사진도 포함하고 있음)

-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1:1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

- 성경을 바로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다.

- 창 1:1의 목적 완성을 위해 기록되었다.

성경이 창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끝나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은 목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창조가 목적 없는 사건이라면 계시록의 완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창조가 “나라의 시작”이라면, 역사는 “나라의 완성”으로 끝난다.

3.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 백성들을 통한 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성경의 본질)

(아담의 불순종으로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하시는 것)

(아담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성경도,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도 없었다)

1) “새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미래 장소’가 아니라 ‘완성된 통치’의 영역이다

새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새 나라”는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우주적 회복을 포함한다.

2) “백성들을 통한”이라는 표현의 의미.

하나님은 단독으로 나라를 완성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방식은 “백성을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백성을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나며, 백성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이다.

성경은 ‘천지창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새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끝난다.(계21장)

<계 21:6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루었다’(γίνομαι 기노마이) :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완성되어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

창1장 ‘창조’ 시작의 목적은 계21장 마지막 완성된 ‘새 하나님 나라’이다.

이 모든 사역은 아담으로 인하여 달렸던 ‘에덴동산’을 ‘새 에덴동산’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창조’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시고자 ‘Incarnation’ 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를 통하여 앞으로 나타날 ‘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정체성’을 찾아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알파와 오메가”는 역사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임을 선언한다.

계 21:6의 선언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큰 이야기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분이다.

2) “이루었다”는 단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완성된 실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새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된다.

3) “새 에덴” 관점으로 보는 구속사.

에덴동산의 폐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달린 에덴”을 “새 에덴”으로 다시 세우신다. 이 관점은 성경을 단편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묶어준다.

타락으로 상실된 ‘에덴’을 ‘구속’으로 회복하여 ‘새 예루살렘’ / ‘새 나라’로 다시 세우신다.

4) 정체성과 사명.

이 성경의 결론은 “나의 정체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성경은 지식 축적이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는 책이고, “나는 왜 이 땅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가 실제적인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을 살 때 ‘구원’이 이루어 진다.

(마 7:21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가리라)

4.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중심인물과 주체는 누구인가?

① 주제(Theme) : 새 하나님의 나라 완성.

- 성경은 천지창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시작하여(창2:8), 새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끝난다.(계21장)

② 중심인물 : 그리스도 예수 - 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체.

- 하나님 나라는 백성의 구원 수가 참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 구원의 수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완성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다.

-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이시다.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시며, 백성을 구원으로 모으시는 분이다.

③ 주체(Principal) : 나 - 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주체.

(주체 : 주제를 이루기 위해 행위나 행동하는 중심인물)

-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 구원의 수를 채우는 매개체가 됨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 "내"가 주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되, 그 구원 역사에 내가 순종으로 참여한다는 뜻이다.

즉, 나는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이다.

5.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 43:7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노라>

- 함께하시면서 영광을 받기 위함. (영광: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 완성)

-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권으로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어 국가의 형태를 이루신 것이다. (국가 요소는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다)

- 아담으로 무너진 나라를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기초석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가나안+백성), Jx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어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 인간 창조 목적은 단지 일을 맡기기 위한 고용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창조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하는 나라"이다.

6.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① 구약 : 초림의 메시아를 계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므로 국가의 형태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 하나님은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죄로 인해 자격을 잃은 백성들에게 다시한번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② 신약 : 메시아를 통한 구원.

새 나라를 완성하시는 데 필요한 온전한 백성들을 택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원죄)로 잃어버린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 주셨다.

<요3:16-17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14:6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계시'이다.

이 계시는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성육신하셨고, 열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것이다.

7. 성경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① 시19:7 여호와와 의 율법(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소생 : Revival.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절망과 좌절에서 회복되는 것.(구원)

② 시19:7 여호와와 의 증거(말씀)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침반.

③ 시19:8 여호와와 의 교훈(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삶의 가치를 높여 주는 능력.

④ 시19:8 여호와와 의 계명(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람의 미래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 (시136:16 인생사가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⑤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흔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 말씀의 능력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명 작용'이다.

시 19편은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혼 소생”은 단순 위로가 아니라,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다.

그래서 말씀은 존재 회복이다.

- “지혜롭게 한다”는 뜻은 우둔함은 머리가 나뻐이 아니라 방향을 모름이다.

말씀은 방향을 보여주는 지혜를 준다. 즉 말씀은 삶의 나침반이 된다.

- 히 4:12의 '판단'은 정죄가 아니라 분별이다.

말씀은 사람을 상처 내기 위해 예리한 것이 아니라, 거짓과 참을 분별하여 회복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 말씀의 예리함은 파괴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절개이다.

8.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숨겨져 있다. 이 섭리와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읽으면서 보아야 한다.

‘읽는다’는 것은 글을 따라가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장면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본다는 것은 내가 그 내용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묵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섭리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며, 그 섭리와 뜻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변하지 않지만, 묵상하는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사명에 따라 레마는 각 자에게 주시는 ‘레마’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레마가 “본문 의미를 바꾸는 권한”은 없다.

그래서 ‘나의 레마’가 절대적이거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섭리와 뜻은 결국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이 “새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가를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의 말씀이란?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고 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음성과 말씀은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뜻을 알려 주셨고, 또한 주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도 히브리어도 아니다.

언어와 말은 그저 마음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이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루신다.

그 ‘말’을 우리에게 ‘글’로 주신 것은, 그 ‘글’로 기록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뜻을 깨닫고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역을 온전히 행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